

## “ 이 세대의 아들들과 빛의 아들들 ”

### ■ 이종윤 원로목사

누가복음에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려, “주인이 그를 불러 내가 네게 대해 들은 말이 어찌 됨이나,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했다. 청지기는 곧 퇴출당할 터이니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기름과 밀을 빚진 자들을 불러 그들의 증서를 훨씬 적게 쓰라 했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행하였으므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고 했다. 불의한 청지기에게 위기가 오듯 이 세대의 아들들에게도 위기가 온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대신 인간지식인 유비쿼터스(Ubiquitous 무소부재)를 찾고 있다. 라틴어로 이 난해한 비유는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는 것인가? 무소부재한 인간 지식이 신의 위치에 있다는 가상공간의 세상이 온다는 것이다. 즉 분명한 사고(Clear thinking)를 하라 한다. 정직하지 못한 청지기를 칭찬한 것은 이 비유의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이 아니고, 그 청지기의 주인되신 한 부자가 지혜있게(?) 행한 일을 칭찬한 것이다.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했다는 사실을 칭찬한 것이지 거짓말 한 것을 칭찬한 것은 아니다. 여기서 ‘지혜’ (프로니모스)는 영어로 wise(현명하라)가 아니라 shrewd(약삭빠르다), prudent(타산적인)이란 뜻이 더 강한 단어다. 이 세상을 목적삼고 살고 있는 이 세대의 아들들은, 천국을 목적삼고 살고 있는 빛의 아들들보다 훨씬 채치었고 약삭빠르게 처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현실 당면문제를 파악하고 해고당할 것을 의식하고 현실 타개책을 모색한 것이다. 그가 칭찬을 받은 것은 그의 정직하지 못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했다는 것 때문이다. 오늘 당신은 미래에 내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 하나님이 계산을 요구하실 때를 준비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궁극적인 문제에 대해 멍청하게 생각없이 사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계신지, 그가 자신을 계시하셨는지, 인격신인지, 그에 대해 믿음도 이해도 없이 하늘에 구름이 흘러가듯 방황하며 지나친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확실한 계시가 있고 그의 대속의 죽음이 있고 구원의 길을 제공하셨고, 하늘나라가 실재함에도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상대주의에 빠져, 회의주의 속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분명하게 생각(판단)하라고 이 비유를 주신 것이다. 천국의 주인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지금 바르게 되어 있는지도 분명히 해야 한다.

이 청지기는 미래를 준비함으로 칭찬을 주인으로부터 받았다. 오늘날 보험회사들이 많이 있다. 생명보험, 건강보험, 암보험, 화재보험, 교육보험, 손해보험, 여행보험 등 대부분이 일어나지 않은 것들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들이다. 우리는 천국시민으로서 영혼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때를 준비하고 있는가? 불의한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알고 행하라 하신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할 재물을 청지기가 제 뜻대로 낭용했기 때문에 불의하다고 했다. 불의한 재물로 이웃을 돕는 일을 하라 친구를 사귀라 했다. 굶주린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나그네 된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를 도우라 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주인의 재물, 시간, 생명, 지식을 이웃돕기 위해 사용한 이들을 양이라 하시며 구원에 들어가게 하셨다.

뒷면으로 계속 ➡

앞면에서 계속

감리교회 창설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는 ‘돈의 사용’이라는 설교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벌 어라.” “저축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저축하라.”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라” 고 했다. 결국 남에게 주 기 위해 벌고, 저축하고,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는 결론으로 비유는 끝이 났다. 땅의 일이 작다고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알고 충성하면 즉 물질을 바르게 쓸 줄 모르는 이에게 영적 보화를 맡기겠느냐,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일을 맡기신다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 즉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불의한 청지기는 미래 준비를 생각하고 즉시 행동화 하여 지체하지 않았다. 이 세대의 아들인 불의한 청지기도 주인이 있듯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청지기로서 주님이 주신 책임을 계산할 날을 준비해야 하다.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가 참 지혜있는 빛의 아들이다.

-한국장로신문 [제 1634호] 2019년 3월 16일 발췌-

English Worship Service	
[Room 802, 11:20 am]	[Preacher : Rev. Euichang Kim, PhD]
	[Presider : Deacon Kichan Yoo]
* Call to Worship .....	John 4:24 ..... Presider
* The Apostles' Creed .....	Congregation
* Doxology .....	1 .....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	Deacon Dong Woo Park
Hymn .....	2 .....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	1 Cor 1:18-25 ..... Presider
Welcome/Fellowship .....	Congregation
Offering .....	Congregation
* Offering Hymn .....	50 .....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	Presider
Anthem .....	Congregation
Sermon .....	“Message of the Cross” ..... Rev. Euichang Kim
* Hymn .....	210 ..... Congregation
* Benediction .....	Preacher
* Lord's Prayer Song .....	635 ..... Congregation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b>우리의 비전 (vision)</b>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	---	---------------

<b>부 목사</b>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b>교육전도사</b> 김은숙 박미라 <b>선교사</b> 강아급주enna,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해경,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스프로토바로이, 조남혜, (방글라데시), 이재을박병진(캄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병연김희경, 우상식김경옥, 이삭, 비스타파. 사지, 예녹(인도), 정상찬홍성임(필라우),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리위), 김영호서향경(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애(타이노동자), 필리몬, 프로산도, 수레시, 수바씩, 이경엽, 알로르, 비사누보도, 보디소프, 린룸, 수란존(방글라데시), 박명성, 김태식, 윤영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                  대한예수교 장로회             </td> <td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2em; font-weight: bold;">                 서울교회             </td> <td style="text-align: center;"> </td> </tr>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SEOUL PRESBYTERIAN CHURCH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td> <td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5em; font-weight: bold;">                 이종윤             </td> <td style="text-align: center;">                 Lee Jong-Yun, Ph. D., DD., D. D.             </td> </tr> </table>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종윤	Lee Jong-Yun, Ph. D., DD., D. D.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종윤	Lee Jong-Yun, Ph. D., DD., D. D.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 “ 교회의 본질 ”

### ■ 마 14:13-21

하루 종일 굶어서 배가 고프 수 천 명을 먹여야하는 위기가 찾아 왔습니다. 우리들의 배고픔을 해결해야 함이 시급하다는 것을 아시고 주님과 제자들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는 것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들녁에서 우리 주님과 12사도와 수 천 명의 무리들이 한데 어우러져 이른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고 비전과 역사적인 소명을 재발견해야 합니다.

#### 1. 오 천 명의 무리들

이들은 멀리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이들은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해가 지는 것도, 배가 고프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들은 말씀을 곡해하거나 오해 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생각, 무모한 욕심, 원망과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에 대한 갈급함만 있을 뿐이었고, 이 갈급함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예배는 체험이고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체험, 말씀의 현저화, 심령과 골수를 쫓개는 말씀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체험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 2. 사도들의 헌신

기적의 중심에서 사도들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피곤을 뒤로하고 섬김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위해 안일한 삶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좋은 일꾼은 주님께서 맡기신 일과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교회의 기적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헌신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 3. 기적의 필수품

어린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아낌없이 드렸을 때 오 천 명이 먹게 되었습니다. 기적의 중심에는 항상 특별한 봉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께 다 드리고도 언제나 부족을 느끼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무얼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고 거래입니다. 예배는 시간과 정성을, 그 무엇을 드리는 것입니다. 빛새다 광야의 어린이가 드린 적은 도시락을 주님은 기뻐 받으시고 복을 내리셨습니다. 자신의 것을 선뜻 내어놓은 그 정성이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 4. 질서를 잃지 않은 군중들

군중들은 하루 종일 굶었지만 서로 먹겠다고 싸우거나 다투지 않았습니다. 서로 양보하고 옆으로 뒤로 돌리면서 질서를 지켰습니다. 현재 한국교회의 급선무는 개별화의 근절과 보편성 회복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환영받고 모두가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속적인 것을 내려놓고, 자기 주장을 절대화 하지 않아야 합니다.

#### 5. 기적의 근본은 주님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장해 하는 것을 보시고 측은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처럼 주님의 측은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목마른 자들의 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교회의 지부심은 넘치는 예산과 축적된 자금이 있지 아니하고 섬김에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갈릴리 예수님의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 6. 믿음으로 바라보다

상대적인 가치, 세상적인 가치로 현실을 보면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을 넘어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무슨 일을 하든 계산으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고 합리적이고 숫자로 예수님께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믿음으로 우리들을 먹이셨습니다.

#### 맺는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선의의 믿음을 가지고 이 환난의 때를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난 주 전재홍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 주일 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서명철 목사	오광환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장석남 목사	조정식 장로
III 오후 2시	조원영 목사	인 도 자

임례송 Prelude ..... 오르가니스트  
 예배예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 16:2...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 인 도 자  
 \* 찬 송 Hymn .....3(2).....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125(사순절 2)...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 1(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 말 은 이  
 찬 송 Hymn .....87(87)...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창 27:41-28:5...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 다 함 께  
 봉 헌 Offering .....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634(70) ...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 인 도 자  
 찬 양 Anthem .....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 다 함 께  
 설 교 Sermon .....“아름다운 말”... 전재홍 목사  
 \* 찬 송 Hymn .....221(525)...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 다 함 께

## 찬양 예배

오후 5시 .인도, 설교: 조원영 목사

목 도 ..... 다 함 께  
 성 시 ..... 시 30:11-12 ..... 인 도 자  
 찬 송 ..... 93(93) ..... 다 함 께  
 기 도 ..... 이승래 집사  
 성 경 ..... 약 1:19-27 ..... 인 도 자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 "말씀을 행하는 자" ... 설 교 자  
 \* 찬 송 ..... 315(512) ..... 다 함 께  
 \* 축 도 ..... 설 교 자  
 \* 주기도송 ..... 다 함 께

## 수요 예배

오후 7시 .인도, 설교: 조원영 목사

기 도 ..... 유숙인 권사  
 성 경 ..... 삼상 30:21-31 ..... 인 도 자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 설 교 자

##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본당 피아니스트: 홍혜란 김양안 박수강 김복희2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설 교 ..... 서명철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박준호	박승기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지난해 성구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마 14:19-20)
영어예배	예루살렘					
수요 I 부						
수요 II 부	호산나	구민영	김윤지	홍혜란		

##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 예배	I 부 예배	오전 9시	
	II 부 예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8층(802호)
수요 예배	II 부 예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벽 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 교회소식

### 모임

1. 에스더 전도회 월례회 / 17일(주) 3부 예배 후 101호
2. 살롬 권사회 월례회 / 17일(주) 3부 예배 후 101호
3. 12사단 진중 세례식 / 23일(토) 오전 7시 교회 출발
4. 가브리엘 찬양대 연습 / 23일(토) 오후 3시 101호

### 알림

1.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5.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9호  
예배다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7.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8.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9.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0.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
11. 금주 수요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12. 의료 상담 / 이번주 상담은 정현구(치과), 노선균(홍부외과) 입니다. 주일 오전 10시10분-오전11시까지  
다음주 상담은 김봉배(통증의학), 공민호(신경외과) 입니다.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의료 상담을 합니다. ※ 전화 예약 010-2728-5939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에서 계속 13.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 (310호) ※ 전화 예약 010-2376-3892
--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900명	227명	211명	1,338명	135명

### 수입, 지출 내역보고(3/10)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3월 10일	헌 금	36,382,400	
	특별예배비		56,646
	찬양운영비		72,000
	선 교 비		1,050,000
	비전2020		4,140,000
	출 판 비		296,000
	세금과공과		5,252,470
	복리후생비		343,760
	통 신 비		983,070
	수도광열비		225,520
	차량유지비		685,450
	사무용품비		13,200
	소모품비		1,179,000
	환경유지비		394,000
	수선유지비		297,000
	식당운영비		916,950
	합 계	36,382,400	15,905,066